

# 近代期 日本 新宗教에 나타난 神話的 世界觀\*

## - 天理教와 金光教를 중심으로 -

張在辰\*\*  
sira113@naver.com

### <目次>

- |                      |                     |
|----------------------|---------------------|
| 1. 序論                | 3.1 中心의 象徴性         |
| 2. 天理教와 金光教의 神話性     | 3.1.1 場所의 神聖化로서의 中心 |
| 2.1 天理教의 神話性         | 3.1.2 軸으로서의 象徴      |
| 2.2 金光教의 神話性         | 3.2 幻想의 傳統과 轉換      |
| 3. 天理教와 金光教의 神話的 世界觀 | 4. 結論               |

主題語: 천리교(Chen Li-Gyo), 금광교(Geungwanggyo), 신종교(Nwe religion), 신화적 세계관(mythical world view), 상징(Symbol), 축(Center)

## 1. 序論

대부분의 종교는 그 이면에 신화적인 세계관을 갖고 있다. 근대기 동아시아에서 형성된 신종교들도 신화적인 세계관을 내포하면서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신화란 무엇인가에 대한 다양한 정의에도 불구하고 ‘神話’란 오랜 세월에 걸쳐서 사람들의 사유나 표상을 인식한 신성한 이야기로 정의된다. 여기에는 천지창조의 신화와 같은 세계형성의 기원이나 민족의 기원, 조상과 영웅의 이야기나 事績들이 담겨있다.

이러한 이야기들 속에는 항상 ‘신비스러움’이라는 용어가 같이한다. 신비스러운 이야기는 초월성과 현실성을 내포하면서 사람들에게 무엇인가를 전달하고자 한다. 여기에는 ‘中心’이 있고 이 중심은 상징성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신비스러움은 그것이 허구이든 사실의 다른 형태의 표현이든 항상 종교와 함께 해 왔다.

근대기에 형성된 일본의 신종교를 통해서 ‘중심의 상징성’과 ‘환상의 전통’을 함의한 신화적 세계관을 볼 수 있다. 天理教와 金光教의 형성에 있어서 이러한 전통이 확대 재생산되어

\* 이 논문은 2018년 동명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 지원으로 진행된 것임(2018F083)

\*\* 동명대학교 글로벌문화콘텐츠학부 교수

新宗教의 교리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天理教와 金光教의 연구에 있어서 ‘神話’를 주제로 해서 진행된 선행연구는 井上昭洋의 「元初まりの話」の表象論：「元の理」文化研究の素描として가 있고 나머지는 대부분 신관이나 교리 신앙체계 등을 다룬 연구가 있다.<sup>1)</sup> 天理教와 金光教 두 종교를 본격적으로 비교분석해서 고찰한 선행연구는 이원범의 「일본계 신종교 운동의 성립과 사상 -天理教와 金光教를 중심으로-」<sup>2)</sup>가 있다.

여기서 논지는 일본계 신종교가 초기성립과정에서 한국포교의 과정 중 일본인 거류민의 상황과 포교활동의 실상을 고찰하고, 무단통치와 문화통치의 시대에 한국 내 교단의 성립상황 등 실증적 검토를 토대로 두 나라간 종교교류의 상황을 분석했다.

신종교의 탄생은 전통종교의 ‘화석화 현상’<sup>3)</sup>이라는 전제를 바탕으로 형성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종교와 전통종교 둘 다 ‘중심의 상징성’과 ‘환상의 전통’을 벗어난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고대의 다양한 제도와 관습, 의례, 신앙 등이 통용되는 지역에서 그것들이 지속되는 것이 정당하다고 인정해 주거나, 그것들의 변경을 승인해 주는 성스러운 헌장(憲章) 구실을 하는 극적인 이야기”<sup>4)</sup>가 신종교의 교리형성에 반영된 것이라고 하겠다.

전통종교와 궤를 달리하고자 하는 신종교는 당대 인류의 삶과 운명에 대해서 전통종교가 이행하지 못한다고 여기는 사안에 대해 다른 방안을 제시하곤 했다. 그리고 이 종교적인 방안에는 항상 신화적인 요소가 포함되어 있었다.

신화는 믿음을 표현하고 강화하고 체계화 하고, 도덕을 수호하고 관철시키고 인간을 바른 길로 이끌기 위해 실질적인 규범을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신화는 현실에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다. 그러므로 신화는 인간의 문명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 
- 1) 天理教에 대한 연구는 교리나 신앙 그리고 다양한 차원에서의 연구가 진행되었다. 이 중에서 ‘神話’를 주제로 고찰된 연구는 井上昭洋(2010)의 「元初まりの話」の表象論：「元の理」文化研究の素描として」(『天理大学おやさと研究所年報』16、天理大学 附属おやさと研究所、pp.1-30)가 있다. 金光教에 대한 연구는 부분적으로 진행된 되었지만 ‘神話’를 주제로 고찰한 연구는 보이지 않고, 神의 관념과 변용에 대한 연구로 桂島宣弘(1993)의 「金光教の神觀念とその変容」(『日ノ本学園短大紀要』日ノ本学園短大、21、pp.199-214)가 있다. 神話와 유사한 주제로 간주될 수 있는 ‘神觀’을 주제로 한 연구는 임태홍(2003)의 「민간신앙의 측면에서 본 일본 천리교 교조의 신관 : 나카야마미키의 초기 신관을 중심으로」(『역사민속학』한국역사민속학회)가 있고, 竹部 弘(1995)의 「金光大神의 신앙에 있어 전통의 계승과 전개 -神觀을 중심으로-」(『한국종교』원광대학교종교문제연구소)가 있다. 그리고 桂島宣弘(2004)의 「近代における<宗教> 化體験 -金光教と復古神道を事例として-」(『대순사상논총』대진대학교)이 있다. 하지만 천리교와 금광교를 주제로 신화적 세계관을 비교 고찰한 연구는 처음 시도하는 것으로 새로운 연구의 논의의 선편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 2) 이원범(1988)「일본계 신종교 운동의 성립과 사상 -天理教와 金光教를 중심으로-」『한국종교』원광대학교종교문제연구소
  - 3) 종교가 형식화(formalism)와 개혁화(reform)의 과정을 번갈아 진행하지 않고, 개혁화는 중지된 채 형식화의 과정만 지속되어 시대의 흐름을 선도하지 못하던 상황을 화석화(fossilization) 현상이라고 한다.
  - 4) J.F. 비엘레인 지음, 현준만 옮김(1999)『세계의 유사신화』세종서적, p.355

요소로 자리해 왔다.<sup>5)</sup> 근대기 일본에서 형성된 天理教와 金光教를 통해서, 신종교가 창시되고 전개되는 과정에 신화가 지니고 있는 환상성과 현실 참여성이 반영되어 있음을 알아보고자 한다.

근대기에 형성된 신종교가 전통종교와의 정통성 시비에 있어서는 다른 면으로 이해되기도 하겠지만, 신화가 지니고 있는 ‘중심의 상징성’과 ‘환상의 전통’을 포함해서 당면한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다른 차원의 실마리를 제시했다는 점에 있어서는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그리고 다른 관점에서 세계를 바라보고 상상하고 이해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주었다는 점에 있어서도 근대성이라고 하는 역사의 흐름과 함께한 면이 있다고 본다.

본고에서 天理教와 金光教에 내재된 신화적 세계관을 모색하여 두 종교가 지니고 있는 ‘중심의 상징성’과 ‘환상의 전통’이 기성종교에 내재된 보편적인 신화성을 어떻게 전승했는가를 살펴보고, 대부분의 기성종교가 말해 온 성스러움의 세계(聖)와 속된 세계(俗)의 이중적인 분류를 근대기의 신종교가 ‘중심의 상징성’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했는가에 대해 고찰함에 연구의 목적이 있다. 그리고 幻想을 타자로 인식하고 이성과 모방(Mimesis)을 중시한 기존의 관점과 한계를 극복할 가능성이 두 신종교의 신화적 세계관에 내재되어 있음을 알아보고자 한다.

## 2. 天理教와 金光教의 神話性

### 2.1 天理教의 神話性

天理教는 나카야마 미키(中山美伎: 1798-1887, 이하 나카야마로 칭함)에 의해 創敎된 근대기 일본의 신종교다. 가족에게 닥친 불행과 자신에게 다가온 무병을 극복하고 천장군(天將軍), 으뜸의 신(元の神), 대신궁(大神宮)이라고 믿어지는 구제의 신을 경험하게 된 나카야마는 자기 자신이 현신(現神), 즉 카미노야시로(神の社)라고 확신한다. 나카야마는 1866년부터 1867년에 걸쳐 ‘미카구라우타(御神樂歌)’를 1869년부터 1884년에 걸쳐 ‘오후데사키(御筆先)’를 씀으로써 천리교의 가르침을 성문화하게 된다.

天理教는 불행의 원인을 숙명적인 업으로 보지 않고 참된 신앙과 근행에 의해 교조로부터 구제를 받아 새로운 행복이 시작될 수 있다고 본다. 그리고 죽음의 문제도 사즉생(死卽生)의

5) J.F. 비얼레인 지음/현준만 옮김(1999), 앞의 책, p.356

생명관, 즉 오래된 육체를 벗어 버리고 영혼은 새로운 육신을 입는다는 ‘데나오시(出直)’<sup>6)</sup>라고 해서 기존의 죽음관이 사후의 세계 혹은 윤회를 설명하는 것과는 다르다. 데나오시(出直)를 통해서 천리교가 현실 중심적이고 현실 지향적인 종교임을 알 수 있다.

미카구라우타(御神樂歌)에 “오야가미(親神)에 대한 한결같은 마음을 가진다면, 사람은 ‘신기한 구제’를 받고, 즐거움이 가득한 이 세상의 극락이 실현된다.”는 내용은 현실에서의 즐거운 삶인 양기생활(陽氣生活)의 실천을 강조하는 것이다. 현실이 괴로우므로 내세에 극락을 바랄 것이 아니라 현세에서의 생활에 감사하고 이타행(利他行)을 할 것을 주장한다.

나카야마의 종교적 체험 중에서 전근대기의 인간의 삶, 특히 여성의 삶에 대한 모순점을 인식한 것은, 근대기 이전의 대부분의 여성에게 주어졌던 부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실마리의 제공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sup>7)</sup> 이러한 내용으로 볼 때 나카야마는 가부장(家父長) 제도를 부정하고 신분제를 비롯한 인관관계 개선을 통한 평등을 주장함으로써 봉건체제의 산물에 파격적인 개혁을 가하고자 했음을 알 수 있다.

“이 세상을 창조한 신이기에 온 세상 사람들은 모두 형제.”라는 구절을 통해서 天下一家の 사상을 알 수 있으며, “이 나무도 女松 男松 말하지 않아 어떤 나무든지 월일의 의도”의 구절을 통해서 양성평등의 사상을 알 수 있다. 천리교의 교조는 “신각이 필요 없다.”고 했다. 이는 나카야마 자신이 신의 현신이라고 생각했으므로 다른 종교처럼 신체를 모실 집이 따로 필요하지 않았던 것이다.

천리교에서 ‘세계의 중심’은 나카야마의 신체, 감로대<sup>8)</sup>, 텐리, 일본 등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천리교의 신이 현현한 목적을 ‘인간의 창조, 세계의 창조, 인류의 구제’<sup>9)</sup>로 집약할

6) 천리교에서는 인간의 신체를 자신의 것이 아니라 신으로부터 빌린 것이고, 시간이 오면 돌려주지 않으면 안 되는 것으로 보며, 다시 몸을 빌려 이 세상에 태어날 때까지 영혼은 오야가미에게 안겨져 있기 때문에 죽음을 死라고 하지 않고 ‘다시 나옴(出直)’이라고 부른다.(이원범·남춘모 지음(2008)『한국 속 일본계 종교현황』大旺社, p.19)

7) 당시 일본 사회의 관습에서 임신부는 반드시 복대를 해야만 했고 출산이 가까워오면 식사도 따로 해야 했으며 출산 당일에는 격리된 산옥에서 아이를 낳아야 했다. 뿐만 아니라 산후 75일 간은 머리에 빗을 대어서는 안 된다든지 물을 만져서도 안 된다는 금기를 엄격하게 지켰다. 이런 금기들은 여성을 부정한 존재로 보는 당시의 사회 관념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그러나 미키는 산혈이란 결코 부정한 것이 아니며 복대를 할 필요도 없다고 주장하여 여성출산이 갖는 신성한 의미를 일깨워주었다. 오직 신의 은혜와 가호만으로 안산이 가능하다는 것을 주장했다.(박규태(2006)『아마테라스에서 모노노케 히메까지』책세상, p.130)

8) 감로대는 하늘의 혜택인 감로를 받는 蠶를 의미하며, 그 대를 세울 터전은 곧 인간 창조와 인류 구제의 원점이 된다. 즉 신의 의지와 인간의 존재에 대한 궁극적 근거를 현세적으로 눈에 보이게 사물과 장소로 표현한 것이 곧 감로대와 그 터전이다.(고다끼 도우루 저/장기근 역(1998)『천리교 교조 나카야마 미키』대학출판사, p.228)

9) 우리가 모시고 믿는 신은 바로 인간을 창조하고 또 세계를 창조하신 아버지 신님이시다. 그러므로 아버지 신님은 세계의 모든 사람들을 한결같이 자녀로 보고 귀여워하신다. 그 신님은 사람들이 고통을

수 있다. 천리교에서 최고의 신으로 믿어지는 으뜸의 신(元の神)은 국가에서 아라히토 카미(現人神)라고 높이는 천황관과 정면으로 충돌한다. 천리교는 일본의 국가신도가 내세우는 『古事記』나 일본서기의 신화와 상충한다. 국가를 초월하여 전 세계 인류를 구제하려는 천리교의 교리는 황국사관과도 다르다. 일본의 유신정부가 내거는 국민국가 사상운동은 세계나 모든 종교사상을 배제하고 오직 신도만을 내세우는 폐쇄적 사상이다.<sup>10)</sup> 그러므로 천리교와 일본의 국가신도와의 관계는 상충할 수밖에 없었다.

천리교 교주인 나카야마가 종교적 체험을 통해 으뜸의 신(元の神)과의 동체성을 인식함으로써 자신이 곧 신성한 존재의 현현임을 자각하게 된다. 이에 ‘신성한 존재의 출현’을 알리는 神話素에 해당하는 내용이 함의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 으뜸의 신(元の神)은 창조’의 신’으로 믿어진다. 세계의 창조 그리고 인간의 창조를 진행한 존재가 곧 으뜸의 신(元の神)으로 믿어지는 창세신화의 神話素가 보인다.<sup>11)</sup> 나카야마가 바라본 ‘만대’의 세계는 ‘진흙바다 이야기’라는 세계창조의 신화에 나타난다.

天理教의 神話에 보이는 신화의 유형은 ‘창세신에 의한 창조형’과 ‘동식물을 이용한 창조 및 변화형’이다. ‘창세신에 의한 창조형’은 나카야마가 『오후테사키』집필 이후 들려주었다는 ‘고키 이야기(こふき話)’에서 언급된다.

이 세계에 인간이 시작된 것은 900,099,999년 이전이다. 진흙바다 가운데서, 달의 신과 해의 신들이 자리를 잡고, 종자와 못자리를 준비해, 다른 도구도 모두 모아서, 거기에 월신과 해신이 들어가, 차츰차츰 보호하고, 이 집터에 900,099,999명을 3일 밤낮에 걸쳐 잉태시켰다. 그리고 3년 3개월을 머물다, 大和지역의 奈良 등 일곱 마을 사이에 7일 걸려 낳았다. … 이 사람들은 5푼 크기로 태어나, 99년 걸려 3치가 되고 모두 죽어버렸다. 원래의 인원수가 같은 태내에 또 잉태되어, 10개월이 지나 또 5푼부터 태어나, 99년에 3치 5푼이 되어, 또 모두 죽어버렸다. … 그때부터 조류, 가축류로, 벌레, 짐승으로 팔천 팔번이나 다시 태어나고, 멸종하였다. … 그 후에 원숭이 한 마리가 남았다. 그는 구니사쓰치 신(國狹植尊)이다. 그 태내에서 남자 5인과 여자 5인, 열사람씩 태어났다. … 인간은 5척이 될 때까지 물속에서 살았다. 3척부터 5척이 될 때까지 음식을 점차로 찾아먹게 되었는데, 가라나 천축까지도 찾아 나갔다. 5척의 성인으로 성장하였을 때에, 이 세계는 하늘, 땅, 바다, 산, 식물까지도 인간의 성장에 따라 생긴 것이다.

(『説話体十四年手元本』、pp.80-82)<sup>12)</sup>

---

받고 고생하고 있는 것을 보시고 이번에 세계 인류를 구제하고자 강림하셨다.(고다끼 도우루 저, 장기근 역(1998)『천리교 교조 나카야마 미키』대학출판사, p.213)

10) 고다끼 도우루 저, 장기근 역(1998)『천리교 교조 나카야마 미키』대학출판사, p.226

11) 『おふでさき』“だんくこのよはちめてひいたてど たれかしんぢつしりたものなし”(pp.4-62)、おふでさき、“月日にわにんけんはじめかけたのわ よふきゅさんがみたいゆへから”(pp.14-25)

‘동식물을 이용한 창조 및 변화형’에서 보면 미꾸라지, 거북, 범고래가 창조의 도구로 사용되었다. 그리고 암원숭이 한 마리가 언급된다.

이 미꾸라지를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이것이 인간의 씨앗인거야/이 자녀수는 9억9천9백9십9인  
인거야/이 인수를 3일 3야에 잉태해서 3년 3개월 머물러 있었다./그로부터 태어난 것은 5푼부터야  
5푼으로 성인했다. (pp.6-46, pp.47-48)<sup>13)</sup>

동식물을 이용한 창조 및 변화형에 속하는 신화는 중국의 소수민족인 獨龍族의 ‘천지를 분리한 큰 개미’, 哈尼族의 ‘烟本霍本’와 ‘天地人’에서 개미와 금붕어 또는 대어가 천지를 창조하거나 분리하는 창조신의 역할을 대행하고 있는 내용이 묘사된다. 이 밖에도 ‘천신과 금개구리’, ‘물고기’, ‘고라니’, ‘개구리’ 등이 등장한다.<sup>14)</sup> 天理教의 神話에서도 유사하게 동물을 이용한 창조 및 변형의 상황이 등장하지만, 단순한 창조 및 변형에 의한 것이 아니라 복잡한 양상을 지니고 있음이 보인다.

## 2.2 金光敎의 神話性

金光敎는 天理敎와 함께 1880년대 일본에서 전국적으로 교세를 확산한 습합신도계로 분류되는 신종교로 교조인 콘코 다이진(金光大神, 1814-1883)이 세계에 카네노카미(金乃神)의 빛을 비추어 그 음덕을 받게 한다고 한다. 즉 교조인 金光大神이 할 일은 神의 바램에 따라서 세계에 이 빛을 전하고 인류를 고난으로부터 구한다는 것이다. 金光敎의 主神인 텐치가네노가미(天地金乃神)는 인간을 비롯한 모든 생명을 탄생시키고 성장시키는 천지의 생명 그 자체를 가리킨다고 한다.<sup>15)</sup>

이자나기, 이자나미도 인간이고 아마테라스 오오미카미도 인간이며, 그 자손인 천황도 인간이다. 무네타다<sup>6)</sup>의 神도 마찬가지이다. 神이라 해도 모두가 진짜 천지의 神에게 몸을 받은 것이다. 천지가 기른 오곡을 먹지 않으면 살 수가 없다. 그러므로 하늘이 아버지이고 땅이 어머니로서, 텐치가네노가미야말로 그 위의 神, 神 중에 神이다. (『금광교교전』, p.442)

12) 임태홍(2010)「천리교 교조 나카야마 미키(中山みき)의 세계관 -세계의 모습과 구조를 중심으로-」『일본 문화연구』제34집, pp.418-419

13) 창조문화 편집부(1999)『아! 오야사마』도서출판 창조문화, p.67

14) 서유원(1998)『중국 창세신화』아세아문화사, pp.112-117 참고

15) 이원범·남춘모 지음(2008)『한국 속 일본계 종교현황』大旺社, pp.54-55 참고

16) 일본 신종교의 하나인 黒住敎의 창시자인 黒住宗忠(1780-1850)를 지칭함.

저 아마테라스 오오미카미는 일본의 신이며 천황의 조상이시다. 그러나 텐치가네노가미는 일본만의 신이 아니며, 온 우주를 관장하는 신이다. (『금광교교전』, p.341)

텐치가네노가미는 어디에도 계시다. 그러니 어떤 곳에서든 기도하면 은총을 받을 것이다. (『금광교교전』, p.291)

위의 내용은 天地金乃神의 ‘지고성과 보편성 그리고 편재성,<sup>17)</sup>을 의미한다. 天地金乃神을 천지의 생명 그 자체로 본 것은, 인도의 主神인 브라흐만이 우주 그 자체이면서 우주를 창조하고 일체를 지배하는 근본적인 원동자로 믿어지는 것과 유사하다. 이는 창세신화의 신화소(神話素) 중의 하나인 ‘세계와 우주의 창조’ 그리고 유지에 대한 내용과 유사하다고 하겠다.

『金光教教典』을 통해서 天地金乃神의 위상을 알 수 있다. 天地金乃神은 神중의 神으로 일본의 창조신이라고 믿어지는 아마테라스오오미카미(天照大神)나 그의 뒤를 이은 일본천황들, 석가모니, 예수 등의 모든 존재가 天地金乃神의 후손이라고 믿어진다.<sup>18)</sup> 이러한 신들 아래에 인간들이 있으므로 信心을 가진 인간만이 神을 중계할 수 있는 존재라고 본다. 天地金乃神에 대한 위상에서 ‘신성한 존재의 출현’과 ‘신이한 행적’이 진행된 신화적인 요소가 보인다.

金光教는 長壽와 富, 그리고 無病을 주장하는 현세주의를 지향하고 불교계의 수행 중 苦行의 행위를 부정한다. 이러한 현세 지향적 사유는 “죽음은 몸에서 영혼이 분리되어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죽을 준비를 하지 말고 살 준비를 하라.”는 구절을 통해 알 수 있다.

天地金乃神이 인간과 깊은 관계성을 지니며 모든 사람의 구원을 바란다고 하는 것도 기존의 전통종교와 유사하다. 天地金乃神과 인간과의 관계를 金光教에서는 “인간에 있어서의 신, 신에 있어서의 인간”이라고 표현하며 이러한 관계를 ‘서로 관련된다, 서로 연결된다.’라고 한다.<sup>19)</sup>

金光教를 창시한 가와테분지로(川手文次郎)<sup>20)</sup>는 1814년에 일본의 오카야마현(岡山縣) 콘코마찌(金光町)의 농가에서 태어났다. 어린 시절부터 근면 성실하게 생활했다고 전해지는 가와테분지로(川手文次郎)는 여러 종교에 관심을 가지고 종교적인 신앙생활을 폭넓게 한 것

17) 박규태(1999)「일본 신종교의 신관념 : 금광교에 있어 악신의 변형을 중심으로」『종교학연구』18, 서울대학교 종교문제연구소, p.41  
18) 弓山達也(1989)「新宗教における「教え」の成立過程 -金光大神のばあい」『宗教研究』日本宗教学会  
19) 사카구찌 미즈마사(1994)「日本の近代化와 金光大神의 신앙」『한국종교문화연구소회보』한국종교문화연구소, 참고  
20) 가와테분지로(川手文次郎)는 본명이오 아카자와분지로(赤澤文次郎)나 이키카미 콘코다이진(生神 金光大神)으로 불린다.

으로 알려져 있다. 42세에 병에 걸려 陰陽道 계통의 曆神인 金神을 숭배했다고 한다. 金神은 陰陽道에서 모시는 방위의 신으로, 이 신이 있는 방위를 범하여 토목, 건축, 여행, 신부 맞이하기 등을 하게 되면 재앙을 당해서 가족 7인이 죽임을 당한다고 한다.

金神은 金氣의 神으로서 모든 것을 말려 죽이는 일을 관장한다. 그러므로 이 신을 두려워하고 삼가 피할 일이다. 만일 金神이 싫어하는 방위를 향하여 집을 짓는다든지 혹은 혼례를 거행해서는 안 된다. 그랬다가는 일가족 중에 일곱 명이 죽임을 당할 것이다. 만일 일가족이 일곱 명이 안 될 때에는 이웃집 사람까지 합쳐 기어이 일곱 명을 채울 것이다. 그래서 이를 七殺이라고 한다.<sup>21)</sup>

가와테분지로(川手文次郎)는 양화(殃禍)의 신인 金神을 惡神으로 인식한 민간신앙을 구제 의신이자 복을 주는 신인 善神으로 전환시킴으로써 새로운 신종교를 탄생시켰다.<sup>22)</sup> 양화의 神인 金神을 두려워하여 제사에 만전을 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족의 죽음과 자신에게 다가온 질병이 거듭되자, 전념하여 기도를 한 후 惡의 神으로 여겼던 金神이 大祖上神이며 구제자인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한다.<sup>23)</sup> 신의 이름도 돈의 신(金の神), 천지 돈의 신(天地金之神)으로 바꾸어서 가와테분지로(川手文次郎) 자신의 이름도 生神金光大神이라고 불렀으며 25년간 방에서 신과 사람의 중개인으로 살았다고 한다.<sup>24)</sup> 이키카미(生神)에 대해 교조 자신은 “이키카미란 신이 태어나는 것이며, 고난에 빠진 사람들을 구할 때, 거기에 신이 나타나는 것이다. 누구라도 이키카미의 활동을 볼 수 있다.”<sup>25)</sup>고 하였다.

天地金乃神은 어떤 神인가? 인간은 天地사이에 살고 있으면서도 그 은덕을 알지 못한다. 神佛을 모시는 신사 및 사원도 인간의 주거도 모두가 신이 머무는 곳인데, 인간은 그런 이치를 모른 채 일진방각만 보고 無禮를 범한다. 그렇게 쌓인 無禮로 말미암아 이런 저런 재난을 입게 되는 것이다. 신을 믿어 그 은덕을 받아야 한다. 이런 때 神이 生神 金光大神을 이 땅에 보내시어 神의

21) 박규태(1999)「일본 신종교의 신관념 : 금광교에 있어 악신의 변형을 중심으로」『종교학연구』18, 서울대학교 종교문제연구소, p.41(『金光敎學』10, p.8(1970))

22) 일본의 명치시대에 문명개화의 사조하에서 민간의 많은 기도자들의 활동과 더불어, 일진방각설을 고취시켜 온 修驗道 陰陽道가 폐지되고, 또한 새로운 曆을 채택함에 따라 공식적으로 曆에서 일진방위에 관한 표기가 제거되기에 이른다. 이 때 金光大神은 자신이 주장해 왔던 것이 세상에서 실현되었다 하여 기뻐하였다고 한다.(竹部 弘(1995)「金光大神의 신앙에 있어 전통의 계승과 전개 -神觀을 중심으로-」『한국종교』20권, 원광대학교종교문제연구소, p.233

23) 竹部 弘(1995)「金光大神의 신앙에 있어 전통의 계승과 전개 -神觀을 중심으로-」『한국종교』20권, 원광대학교종교문제연구소, p.232

24) 阿部正路 著/裴正雄 譯註(2000)『신사문화를 모르고 일본문화를 말할 수 있는가?』도서출판 계명, pp.214-215

25) 이원범·남춘모 지음(2008)『한국 속 일본계 종교현황』大旺社, p.56



자녀들에게 참된 도리를 들려주고 그들로 하여금 번성케 하고자 한다. 인간이 있어 신이 있는 것이며, 신이 있어 인간이 있는 것이니, 신과 인간이 함께 나아가고자 하는 것이다.

(『覺書』21장 21절)<sup>26)</sup>

이러한 상황이 있게 된 배경에는 분지의 기도와 이에 따른 자각이 있었는데 “덴치가네노카미(天地金乃神)에게 무례했음을 알지 못한 채 그 난리를 폈다.”<sup>27)</sup>는 내용이 이에 해당한다. 이 내용은 분지가 자신이 겪은 불행을 “덴치가네노카미(天地金乃神)라는 신이 인간을 구하기 위해 자신에게 내린 일종의 신정론(神正論, theodicy)적 시련으로 이해한 것”<sup>28)</sup>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을 통해 “악과 고통의 현실을 종교적으로 변형시키고자한 분지의 적극적인 자세”<sup>29)</sup>를 알 수 있다. 현세 중심적인 금광교의 가르침은 “믿음에 의해서 현실의 행복과 死生安心을 얻는 것을 골자”<sup>30)</sup>로 하고 있다. 창교 당시에는 중하층의 농민과 상공인들에게 지지를 받았다고 한다.

### 3. 天理教와 金光教의 神話的 世界觀

#### 3.1 中心의 象徴性

##### 3.1.1 場所의 神聖化로서의 中心

성스러운 顯現이 “존재론적으로 세계를 세우고 절대적으로 고정된 지점, 즉 중심을 드러낸 다고”<sup>31)</sup> 한 것처럼 근대기 일본의 신종교에 보이는 세계관도 ‘中心’의 상징성을 말하고 있다. 천리교에서 보이는 중심의 상징성은 나카야마의 공간인식으로부터 알 수 있다. 나카야마의 공간인식에서의 중심은 ‘체내(體內)’, ‘태내(胎內)’, ‘집터(屋敷, 야시키)’, ‘일본’ 등이다. 금광교에서 보이는 중심은 원래 금방(金方) 즉, 금신(金神)의 방위였는데 이것이 특정한 방위의 개념을 벗어나서 중심의 상징성을 지니게 된다. 가와테분지로(川手文次郎) 자신의 다른 이름

26) 竹部 弘(1995), 위의 책, p.234

27) 金光教本部教廳(1983)『金光教教典』금광교본부교청, p.22

28) 박규태(2006)『아마테라스에서 모노노케 히메까지』책세상, p.132

29) 박규태(2006), 앞의 책, p.135

30) 阿部正路 著/裴正雄 譯註(2000)『신사문화를 모르고 일본문화를 말할 수 있는가?』도서출판 계명, p.215

31) 더글라스 알렌 지음/유요한 옮김(2008)『엘리아데의 신화와 종교』이학사, p.251

인 生神金光大神은 神과 인간을 매개하는 것을 상징하는 ‘中心’을 의미한다.

종교적 인간은 ‘세계의 中心’에 자신을 위치시키려고 해왔다. 이러한 중심은 “기하학적인 공간의 문제가 아니라 초월적 세계와 무수한 교섭을 행할 능력을 가진 실존적이고 거룩한 공간”<sup>32)</sup>으로 믿어졌다. 천리교의 교조인 나카야마 자신의 ‘신체’나 금광교의 교조인 生神金光大神의 ‘신체’는 기하학적인 공간의 의미를 내포하면서도 열린 세계와의 교섭을 가능하게 한다. 중심을 상징하는 ‘신체’에서 더 나아가 천리교의 ‘집터’나 금광교의 ‘山陽’, ‘세토나이카 이’는 성스러운 공간이며 실재하는 장소로 인식되었다. 이러한 장소는 더 나아가 ‘일본’으로 ‘세계’로 확장되었다.

이 ‘장소’는 성스러운 공간이며 단일한 지역 내에 많은 중심들이 있다고 해도 이러한 중심의 상징체계는 성스러운 신화적 지형을 가리킨다.<sup>33)</sup> 엘리야데는 “종교적 인간이 고정된 세계의 중심을 발견하거나 어떤 공간에 그러한 것을 투사하는 작업이 세계창조에 버금가는 일”이라고 평가했다. 천리교와 금광교에서 보이는 장소의 신성화는 교조가 성스러운 공간을 체험 또는 발견하여 “자신의 관념 속에서 그 공간을 변용하여 특수화했다”<sup>34)</sup>고 볼 수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 장소는 세계의 중심이 되고 俗된 공간과 聖스러운 공간 사이의 매개적 역할을 상징한다.

### 3.1.2 軸으로서의 象徴

중심의 상징성은 성스럽다고 여겨지는 ‘산’이나 우주나무 또는 세계나무로 불리는 ‘나무’, 그리고 탑과 같은 ‘기둥’을 ‘세계의 축’으로 설정함으로써 성스러움과 매개성을 표상한다. 천리교에서 교조의 ‘신체’와 동일한 표상의 실재성은 ‘감로대’라고 할 수 있다. 감로대는 세계의 중심축으로서 우주나무를 표상한다. 금광교에서 교조의 신체와 동일시하는 중심축은 ‘天地書附’이다. ‘天地書附’는 生神金光大神이 중개하는 표상이다. 토리츠키는 확대된 중심의 표상이다.

‘중심의 축’에 대한 이러한 인식은 중국의 신화인 반고신화(盤古)에서 유사하게 등장한다. 하늘과 땅이 생기고 그 사이에 생겨난 반고는 하늘에서는 신(神)이고 땅에서는 사람이었는데 이러한 반고 자체가 천지간의 기둥이 되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세계의 ‘중심 축’이 된 셈이다.

인간의 육체만이 아니라 사람이 살고 있는 특정한 땅의 풍경도 신성시한 태고의 신화에서 처

32) 멀치아 엘리야데 지음/이동하 옮김(2006)『성과 속』학민사, p.52

33) 더글라스 알렌 지음/유요한 옮김(2008), 위의 책, p.251

34) エリアーテ 著/久米博 譯(1974)『聖なる空間と時間』せりか書房, p.58

럼 종교는 신성하다고 여겨지는 특정인과 이와 관련성이 깊다고 여겨지는 장소를 신성화한다. 이에 해당하는 표상과 축이 ‘甘露臺’와 ‘天地書附’라고 하겠다.

신화적인 실체가 하나의 중심축을 지니면서 표상으로서의 여러 장소를 드러내지만 같은 원형은 근본적으로 하나의 중심축에 갈무리되어 있는 것이다. 신성한 공간과 세속적인 공간은 분리되어 있으면서 혼합되어 있다. 이것은 장소의 중요성이 ‘顯現의 방법’<sup>35)</sup>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 3.2 幻想의 傳統과 轉換

天理教와 金光教를 통해서 神話의 보편적 속성이라고 할 수 있는 ‘幻想의 傳統’이 내재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幻想을 타자로 인식하고 이성과 모방(Mimesis)을 중시한 기존의 관점<sup>36)</sup>과 달리, 幻想을 현실적이고 실존적인 것으로 전환하여 인식하려는 노력이 두 신종교의 신화적 세계관에 내재되어 있다고 하겠다.

고정된 가치체계를 부정하고, 존재의 면모에 대한 관점을 바꿔서 재 고찰하게 하고, 현실의 한계를 초탈하여 그 밖을 상상하게 하는 힘을 지니고 있는 도교<sup>37)</sup>적 전통이 천리교와 금광교의 신화적 세계관에 내재해 있음을 알 수 있다. 도교적 세계관에서 보이는 仙界는 현실 너머에 존재하는 他界이다. 여기에는 합리성과 현실성보다는 자유로운 상상을 통한 환상의 세계가 존재한다.

幻想이 인간의 경험 세계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초자연적이며 불가능한 사건으로 이야기되지만 ‘사실에 대한 인식 위에 자리 잡고 있다’는 흠의 말처럼 이상세계에 대한 동경을 통해서 즐거움과 유희를 가져다 줄 수 있다.<sup>38)</sup> 그래서 환상은 비록 초현실적인 상황이라 하더라도 실재할 수 있다는 심리를 갖게 한다.

왜냐하면 환상성이 부조리한 현실로부터 도피하는 탈출구이며 고통스런 삶에 대한 위안이 자 보상을 동반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환상은 가려졌던 문화나 기존의 가치관을 부정하고 이에서 일탈하고 현존 질서 밖의 세계를 묘사함으로써 현실을 전복한다. 그러므로 환상은 끊임없이 리얼리티로부터 탈출하려 하지만 궁극적으로 도달하려는 세계는 또 다른 실재의

35) 쿠르트 휘브너 저/이규영 옮김(1991)『신화의 진실』대우학술총서, p.217  
 36) 아리스토텔레스가 ‘사건과 인물들의 개연성을 문학의 척도로 판단’한 것과 레오나르드 다빈치가 “재현되는 사물을 가장 닮게 그리는 그림이 가장 훌륭한 그림”이라고 주장한 것은 서양이 이성과 모방(Mimesis)을 중시해온 전통을 강조해 왔음을 말해준다.(강민경(2007)『조선중기 유선문학과 환상의 전통』한국학술정보(주), p.184)  
 37) 강민경(2007)『조선중기 유선문학과 환상의 전통』한국학술정보(주), p.185  
 38) 강민경(2007), 앞의 책, pp.187-188

세계이다.<sup>39)</sup>

천리교는 사후세계라는 대상을 통한 존재성의 확보가 아니라 현실의 중요성을 강조한 ‘出直’의 관념, ‘양기생활(陽氣生活)’의 실천을 통한 현세 중심적 사고 등을 통해서 환상성(幻想性)을 실재성(實在性)으로 전환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금광교는 惡神으로 인식된 金神을 구제의 神이자 복을 주는 神인 善神으로 전환시킴으로써, 방위의 神性에 대한 집착과 악신과 선신에 대한 대척적인 관계를 신정론(神正論, theodicy)적 시련으로 이해함으로써 기존의 가치관을 탈피해서 또 다른 실재의 세계를 구현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아마테라스 오오미가미(天照大神)와 金神과의 대화내용’<sup>40)</sup>을 통해서 금광교의 교조인 가와테분지로(川手文次郎)가 生神金光大神이 되는 과정을 알 수 있으며, 가와테분지로(川手文次郎)가 일본전통의 神道보다도 金神信仰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가와테분지로(川手文次郎)가 기존의 神佛신앙이나 민간신앙보다 오히려 惡神인 金神을 福神으로 전환시킴으로써 새로운 종교적 自覺을 한 것으로 보인다.

나카야마(中山)와 분지(文治)의 환상적 종교체험과 이를 통한 자각은 초현실적인 상황을 실재할 수 있는 현실로 전환할 수 있다는 믿음을 동반한다. 천리교의 경우 ‘샤먼의 주술적 행위인 굿에 참여했다가 제압하려던 신에게 역으로 제압당함’을 통해서 그 신이 ‘ 으뜸의 신(元の神), 진실한 신(實の神)’임을 자각하고 나카야마 자신의 신체가 곧 사당이 되면서 세계의 중심이 되었다고 믿어진다.

한편으로 금광교의 경우는 세 차례에 걸친 집수리 및 신축공사를 통해서 가족과 동물이 죽게 되고 이러한 상황이 惡神인 金神이 일으킨 재앙이라고 믿게 된 가와테분지로(川手文次郎)가 모든 불행이 인간 자신에게 있음을 자각하게 된다. 이를 통해서 악신은 선신으로 전환하게 된다. 이를 통해서 나카야마와 분지가 환상의 종교체험을 통해서 인식의 전환을 했음을 알 수 있으며, 환상이 초자연적이며 불가능한 사건으로 믿어지지만 ‘사실에 대한 인식 위에 자리 잡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4. 結論

천리교와 금광교의 신화적 세계관 중에서 ‘중심의 상징성’과 ‘환상의 전통’이 기성종교에

39) 강민경(2007), 앞의 책, p.188

40) “아마테라스 오오미가미(天照大神)에게 분지를 달라고 하자 그러라고 했다. 이리하여 金神은 42세 액년 때에 분지를 손에 넣고 제자로 삼겠다고 말씀하셨다.”(金光教本部教廳(1983)『金光教教典』, p.19)

내재된 보편적인 신화성을 어떻게 전승했는가에 대해 고찰해 보았다. 기성의 종교가 최고신과 신도(信徒)의 관계에 있어서 신관(神官)과 같은 종교인을 통해서 종교의례의 매개적 기능을 중시했다고 한다면, 천리교와 금광교 같은 신종교의 특징은 종교인의 매개적 역할이 축소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개인의 신앙행위를 통해서 최고신과의 직접적인 관계성을 지닌다는 의미에 있어서 전통종교와의 차별성이 있다고 하겠다.

독일의 신학자인 루돌프 볼트만(Rudolf Bultmann, 1884-1976)이 말한 “인간들이 세계 속에서 우리 자신을 이해하는 방식”의 또 다른 대상과 방법을 천리교와 금광교의 신화적 요소를 통해서 볼 수 있다. 대부분의 동아시아 국가들에서 보이는 전근대적 관습이었던 여성혐하 혹은 여성 금기의 사회적 관념은 천리교의 나카야마 미키(中山美伎)나 금광교의 가와테분지로(川手文次郎)에 의해 다르게 인식되었다. 천리교와 금광교는 으뜸의 신(元の神)이나 天地金乃神에서의 평등을 주장함으로써 일본 전통의 민간신앙의 금기적 요소들을 부정했다.

종교적 인간이 ‘세계의 중심’에 자신을 위치시키려고 해왔으며 이러한 중심에는 항상 성스러운 것을 대항하는 교주나 권력을 상징하는 왕이 자리했다. 이러한 상황을 전근대적 혹은 봉건적 시기의 구조라고 본다면 근대기라는 과도기적 상황에서는 중심의 이동이 예견된 것이라고 하겠다.

“모든 종교적 행위는, 그것이 아무리 ‘원시적’(의례, 숭배, 전례)이라도 우주의 통일성을 복구하고 인간을 재통합하려는 시도이다.”고 한 엘리야데의 말처럼, 하나의 ‘축’만을 중심으로 해서 주변을 규정한 상황과 달리, 단일한 ‘축’을 중심으로 다양한 ‘축들’의 조화를 형성하고자 한 두 종교의 의도는 인식의 전환을 통한 재통합과 재구성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환상에 대한 관심이 부각되고 있는 오늘날, 근대기에 형성되었던 두 신종교에서 보이는 환상의 전통은 두 교조의 종교적 체험과 자각에 의해 실재할 수 있는 것으로의 인식의 전환을 보여준 것이라 하겠다.

**【참고문헌】**

강민경(2007)『조선중기 유선문학과 환상의 전통』한국학술정보(주), pp.184-188  
 고다기 도우루 저, 장기근 역(1998)『천리교 교조 나카야마 미키』대학출판사, pp.213-228  
 쿠르트 휘브너 저, 이규영 옮김(1991)『신화의 진실』대우학술총서, p.217  
 박규태(1999)「일본 신종교의 신관념 : 금광교에 있어 악신의 변형을 중심으로」『종교학연구』18, 서울대학교 종교문제 연구소, p.41(『金光敎學』10, p.8.(1970))  
 \_\_\_\_\_(2006)『아마테라스에서 모노노케 히메까지』책세상, pp.130-135  
 이원범(1988)「일본계 신종교 운동의 성립과 사상 -天理敎와 金光敎를 중심으로-」『한국종교』원광대학교종교

문제연구소

이원범·남춘모 지음(2008)『한국 속 일본계 종교현황』大旺社, pp.19-56  
 멀치아 엘리아데 지음, 이동하 옮김(2006)『성과 속』학민사, p.52  
 J.F. 비얼레인 지음, 현준만 옮김(1999)『세계의 유사신화』세종서적, pp.355-356  
 더글라스 알렌 지음, 유희한 옮김(2008)『엘리아데의 신화와 종교』이학사, p.251  
 金光教本部教廳(1983)『金光教教典』금광교본부교청, pp.19-22  
 阿部正路 著/裴正雄 譯註(2000)『신사문화를 모르고 일본문화를 말할 수 있는가?』도서출판 계명, pp.214-215  
 エリアーテ 著/久米博 譯(1974)『聖なる空間と時間』せり か書房, p.58  
 竹部 弘(1995)「金光大神의 신앙에 있어 전통의 계승과 전개 -神觀을 중심으로-」『한국종교』원광대학교종교문  
 제연구소, pp.232-234  
 사카구찌 미츠마사(1994)「日本の 近代化와 金光大神의 신앙」『한국종교문화연구소회보』한국종교문화연구소  
 弓山達也(1989)「新宗教における「教え」の成立過程--金光大神のばあい」『宗教研究』日本宗教学会  
 井上昭洋(2010)「元初まりの話」の表象論：「元」の理」文化研究の素描として」『天理大学おやさと研究所年報』  
 16、天理大学 附属おやさと研究所, pp.1-30  
 임태홍(2003)「민간신앙의 측면에서 본 일본 천리교 교조의 신관 : 나카야마미키의 초기 신관을 중심으로」『역  
 사민속학』한국역사민속학회  
 임태홍(2010)「천리교 교조 나카야마 미키(中山みき)의 세계관 -세계의 모습과 구조를 중심으로-」『일본문화연  
 구』제34집, pp.418-419  
 桂島宣弘(2004)「近代における <宗教> 化體驗 -金光教と復古神道を事例として-」『대순사상논총』대진대학교  
 창조문화 편집부(1999)『아! 오야사마』도서출판 창조문화, p.67  
 서유원(1998)『중국 창세신화』아세아문화사, pp.112-117  
 桂島宣弘(1993)「金光教の神觀念とその変容」『日ノ本学園短大紀要』21、日ノ本学園短大, pp.199-214

---

논문투고일 : 2018년 09월 29일  
 심사개시일 : 2018년 10월 17일  
 1차 수정일 : 2018년 12월 31일  
 2차 수정일 : 2019년 02월 07일  
 게재확정일 : 2019년 02월 15일

---

<要旨>

근대기 일본 신종교에 나타난 신화적 세계관

- 天理教와 金光教를 중심으로 -

장재진

대부분의 종교가 그 이면에 신화적인 세계관을 갖고 있는 것처럼, 근대기 동아시아에서 형성된 신종교들도 신화적인 세계관과의 연관성을 지니면서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신비스러운 이야기는 초월성과 현실성을 대표하면서 사람들에게 무엇인가를 전달하고자 한다. 이 전달의 표상에는 ‘中心’이 있고 이 중심은 상징체계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신비스러움은 그것이 허구이든 사실의 다른 형태적인 표현이든 항상 종교와 함께 해 왔다. 근대기에 형성된 일본의 신종교를 통해서 ‘중심의 상징성’과 ‘환상의 전통’을 함의한 신화적 세계관을 볼 수 있다.

신종교가 전통종교와의 정통성 시비에 있어서는 다른 면으로 이해되기도 하겠지만, 신화가 지니고 있는 ‘중심의 상징성’과 ‘환상의 전통’을 당면한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 실마리를 제시했다는 점에 있어서는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환상에 대한 관심이 부각되고 있는 오늘날, 근대기에 형성되었던 두 신종교에서 보이는 환상의 전통은 두 교조의 종교적 체험과 자각에 의해 근대를 맞이하는 인식의 전환을 보여준 것이라 하겠다.

The mythological worldview in a new religion of modern Japan

- Focusing on Chen Li-Gyo and Geumgwanggyo -

Jang, Jae-Jin

Just as most religions have a mythical worldview behind them, so new religions formed in modern East Asia seem to have been formed in connection with mythical worldviews. A mysterious story tries to convey something to people while embracing transcendence and reality. There is a ‘center’ in the representation of this transmission, and this center has a symbol system. This mystery has always been with religion, whether it is fiction or any other form of expression of fact. Through the new religions formed in the modern era, we can see the mythical world view that implies ‘the symbolism of the center’ and ‘the tradition of fantasy’.

Although new religions may be understood as a different aspect of the legitimacy of traditional religions, it is important that they present a clue to solve the problem of reality facing the ‘symbolism of the center’ and ‘fantasy tradition’

The fantasy tradition in the two new religions formed in the modern era, today shows the transformation of the awareness that welcomes the modern by the religious experience and awareness of the two doctrines.